독립영화 인터뷰 매거진
NOW 2017.07 / NO.13

음악-영화 서로의 시간을 길다

CONTENTS

음악도 영화도, 감상에 시간의 경과가 전제되는 장르면서 시간을 멈추고 지연하는 장르가 아닐까 합니다. 나의 지금이 아닌 누군가의 한때로 시점을 돌려놓고, 작품과 가장 각별한 감정을 쌓았던 순간으로 기억을 돌려놓고, 최후의 순간을 담지하면서도 재생하는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만드는 음악-영화. '음악영화'를 큰 주제로 마련한 이번 NOW는 그래서인지 더 여러 시간을 회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SPECIAL' 섹션에서는 기존의 인터뷰와 더불어 새로운 코너가 함께합니다. 인디스페이스 관객기자단 '인디즈'가 'FOCUS'를 통해 인터뷰 대신 작품을 직접 소개함으로써 주제를 단단히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새 얼굴이 있습니다. 'STAFF'에서는 독립영화판에서 활동하는 스태프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화가 관객에게 닿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들과 같이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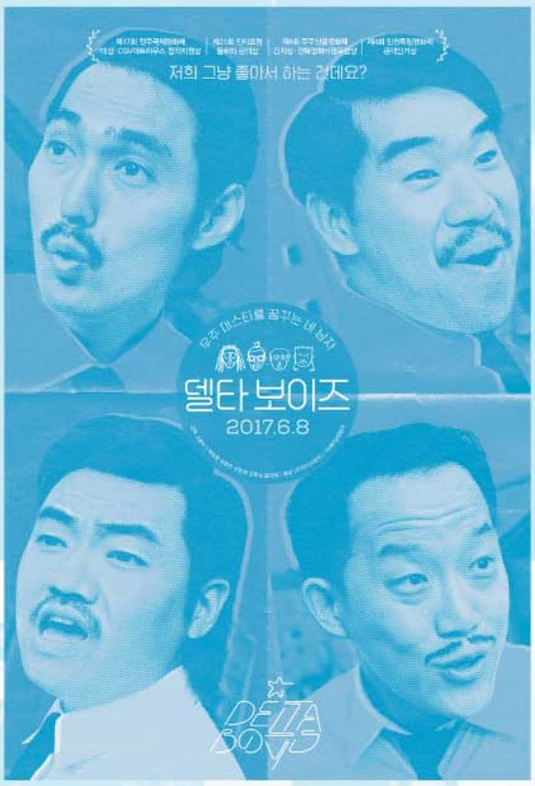
'다른 영화 말고 너'에서는 정재웅 감독의 <이크 하우 반 하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코너에서 목격하는 경험으로서의 영화는 단순히 알고 있는 영화 이야기를 다른 이의 입에서 듣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감각으로서, 돈오로서, 머뭇거림으로서 아주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발견된 이 영화들은 회상보다는 첫만남 처럼 낯설게 다가옵니다. 부산에서 독립영화를 만들며 동료를 찾고 싶어하는,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 오지필름의 메시지도 함께합니다. 일당백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오지필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동료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오랫동안 함께할 동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지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독립영화 인프라가 조성된 부산임에도, 이 도시와 주변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활동을 이어갈 영화인은 현저히 적다는 것이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음악영화'라는 이름 앞에서 골똘한 토끼리의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음악영화라는 걸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장르에 붙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어쩌면 편의상 붙은 이 이름이 어디까지를 포괄할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2017년, 올해로 NOW가 5년 째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했던 이야기만큼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NOW는 독립영화에 대한 잡지면서 독립영화를 위하는 사람들의 사랑방이기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비롯해 꾸준히 이어지는 대화의 장과 새로이 만들어진 발언의 공간이 두루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 기록이 언제든 우리를, 소중했던 시간으로 이끌 수 있기를요.

김송요

03
SPECIAL
04
인디스페이스 관객기자단
인디즈가 발견한 음악영화
08
<위켄즈> 이동하 감독
12
<델타 보이즈> 고봉수 감독
16
<노후 대책 없다> 이동우 감독

20
RELAY TALK 오지필름 문창현 대표
21
다른 영화말고 너 <이크 하우 반 야우>
22
STAFF 서울아트시네마 정연주 영사기사
24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음악-영화
서로의 시간을 긷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독 극장에서 음악영화를 만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번 NOW에서는 상반기에 만난 바로 그 음악영화 중 세 편 <위켄즈>, <델타 보이즈>, <노후 대책 없다>를 만든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형식으로, 중창단, 합창단, 밴드를 주인공으로 관객에게 다가온 이 영화들은 꾸밈없는 개개인의 표정으로, 사회를 향한 목소리나 손길로, 크고 작은 음량과 선율의 음악으로 그 내면을 풍성하게 내보입니다. 인터뷰에서, 영화를 만든 이들 역시 그만큼 솔직하게 또 애정을 담아 영화의 앞뒤와 안팎을 풀어놓았습니다. 어쩌면 음악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럼에도 이들이 들려준 음악, 보여준 영화의 기슭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음악-영화를 만들고 음악-영화가 말하는 사람과 세상을, 이 작은 틈으로 엿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음악 + 영화
역사, 인생, 감정의
언어가 되다

인디스페이스
관객기자단
인디즈가 발견한,

음악과 영화의
언어로 대화하는
세 편의 음악영화

고려 아리랑: 천산의 디바 Sound of Nomad: Koryo Arirang

빼어날 고, 아름다울 려

감독: 김정 / 러닝타임: 96분 / 개봉: 2017.05.25

<고려 아리랑: 천산의 디바>의 감독 김소영의 저서 『근대성의 유령들』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영화는 현대성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집단적 역사의 기억장치로서 소개된 사회적, 정신적 장치이다.' 영화가 하나의 '집단적 역사의 기억장치'라고 할 때 '집단적'이란 말은 '역사'를 수식할 수도, '기억장치'를 수식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집단의 역사'는 무엇으로 규정해야 할까? 우리가 영화에 담아내는 것은, 누구의 역사일까?

이른바 '우리 역사'를 논할 때, 필연적으로 어디까지를 우리 집단으로 범주화할 것이냐는 문제를 마주한다. 이는 곧 누구까지 '우리'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영화 <고려 아리랑: 천산의 디바>는 분명 반도의 역사와 어떤 부분에서 공명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여태 '우리'의 역사 속에 위치해 있었던가.

영화는 고려인의 역사를 복원시킴과 동시에 이들이 이어온 '아리랑' 문화를 가시화한다. 더 정확히는 고려인이 간직해온 문화, 예술 혹은 전통으로서의 아리랑을 통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한다. 천산(千山, 수많은 산과 언덕)에 울려 퍼졌던 고려(高麗, 빼어나고 아름답다)의 아리랑은 말 그대로 천산을 돌고 돌아 바로 지금 이곳 극장에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주어 너무도 기쁘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노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영화 속 등장인물 방타마라의 특별할 것 없는 이 말이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이 된다. 멀어진 몸과 멀어진 시간 탓에 쉬이 듣지 못했던 디바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보자. 기억장치로서의 영화는 관객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해질 것이다. 마치 시공간을 뛰어넘어 울려 퍼진 아리랑처럼.

박영농

플레이 Play

단지 한 곡의 음악으로

감독: 남다정 / 러닝타임: 99분 / 개봉: 2011.06.23

음악을 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났던 '준일'(정준일 분)은 한국에 돌아와 음악 작업에 한창이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가 원하는 음악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와중에 그의 연인 '수현'(이안 분)마저 네덜란드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 닥친다. 준일은 그녀를 붙잡고 싶지만, 가진 것 없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섣불리 그럴 수 없다. 준일은 끝내 그녀를 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노래를 그녀에게 건넨다.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고민하던 준일은 직접 밴드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일전에 같이 공연한 적이 있는 드러머 '현재'(이현재 분)를 섭외하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기타리스트 '헌일'(임헌일 분)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많고 많은 신인 밴드 사이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멤버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쯤, 그들은 세계적인 포크 듀오 '스웰 시즌'의 공연장 앞에서 버스킹 기회를 얻게 된다. 대중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가슴이 벅차오른다. 버스킹이 끝나고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기회를 마주한다.

<플레이>는 실존하는 밴드 '메이트'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실제 밴드 멤버들이 모두 자기 자신을 연기하여 몰입도를 더욱 높였다. 뮤지션 이야기를 하는 영화이니만큼 곳곳에서 좋은 음악들을 듣는 재미가 있다. 특히 영화 후반부의 버스킹 장면은 굉장하다. 실제 밴드가 직접 연주하는 모습을 담았으니, 그럴 법도 하다.

영화의 완성도 또한 높다. 조금씩 서로에게 빠지고 있는 헌일과 '은채'(정은채 분)가 함께 노래하며 교감하는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은채의 노래가 끝나자 헌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시작한다. 은채는 이 노래가 그의 진심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쏭달쏭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본다. 관객은 음악을 들으며 헌일이 은채에게 얼마나 빠져있는지 느끼게 된다. 음악이 만들어지기까지 끊임없이 곱씹었을, 은채를 향한 감정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이게 바로 음악영화의 매력 아닐까.

일상적 '언어' 대신 '음악'이 영화를 채울 때, 음악은 인물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속에 관객이 쉽게 녹아들게 하며 그들의 감정에 자연스레 몰입하게 만든다. 영화 전반에 걸쳐 수백 마디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들이 얼마나 능숙한 뮤지션인지도 느낄 수 있다.

김은정

투 올드 힙합 키드 Too Old Hip-Hop Kid

힙합, 그리고 자라나는 삶

감독: 정대건 / 러닝타임: 97분 / 개봉: 2012.09.13

관중을 휘어잡는 MC를 꿈꾸던 열여섯 살의 힙합 키드 '대건'. 어느새 스물여섯 살이 된 그의 손에는 마이크 대신 카메라가 들려 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십 대 시절 함께 힙합이라는 꿈을 꾸었던 또 다른 힙합 키드들을 찾아간다. 십년 전 래퍼를 꿈꿨던 이들은 언더그라운드 힙합 뮤지션, 공무원 시험 준비생, 회사원, 공대 대학원생, 학원 강사가 되어 각기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 대건의 카메라는 '투 올드 힙합 키드'가 된 이들의 일상을 친숙하게 유영하며 그들이 지녔던 과거의 꿈과 동시에 힙합에 대한 그들의 현재진행형의 열정을 담아낸다.

정대건 감독의 <투 올드 힙합 키드>는 각자의 불안을 안고 현실을 살아가는 청춘과 그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꿈, '힙합'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작품에는 힙합을 본업으로 삼은 이들과 힙합이라는 꿈을 뒤로하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선 이들이 등장한다. 자칫 '꿈을 이룬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는 이분법적 시선이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투 올드 힙합 키드>는 그런 시선을 최대한 배제하며 힙합이 음악 장르를 넘어선 삶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임을 드러낸다. 마이크 대신 카메라를 들고도, 무대 대신 직장에서도 힙합을 할 수 있다는 인물들의 말을 통해 작품은 힙합의 본질이 애정과 열정 그 자체임을 이야기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힙합으로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힙합을 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달한다.

힙합을 소재로 한 영화인만큼 <투 올드 힙합 키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힙합 음악들이다. 작품에 출연한 JJK, 허클베리 피, 투게더 브라더스의 곡들과 정대건 감독이 직접 작사한 자작 랩은 단순한 BGM을 넘어 <투 올드 힙합 키드>의 주제를 더욱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한다. 홍대 놀이터에서 진행되는 길거리 공연, 프리스타일 랩 배틀, 앨범 녹음, 클럽 공연 등을 담은 장면들 또한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작품 속에 녹아있는 여러 음악적 요소들은 '투 올드 힙합 키드'들이 이야기하는 '힙합'이라는 삶의 태도와 맞물리며 웃음과 뭉클한 감정을 자아낸다.

이지윤

벅차게 살아온 당신을 위해! 콩그레츄레이션!

G_Voice의 끝나지 않을 노래

<위켄즈> 이동하 감독 전재우 음악감독

노래로 세상과 이야기하는 사랑스럽고 유쾌한 게이코러스 합창단 G_Voice(이하 지보이스). <라라랜드> 부럽지 않은 무대를 꿈꾸지만 10년이 지나도 노래를 못 하는 것이 고민이다. 입단은 넘쳐흐르는 끼와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케이. 창단 10주년 기념공연을 앞둔 지보이스 단원들의 귀여운 시기, 질투와 설레는 사랑 그리고 마음 속 깊은 고민까지 모두 담아낸 사랑스러운 영화 <위켄즈>의 이동하 감독과 지보이스의 많은 곡들을 빚어낸 전재우 음악감독을 만나보았다.

먼저 '친구사이' 소개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어떤 단체인가.

재우: 친구사이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로 제도와 법의 개선 촉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인권활동을 하고 있다. 동시에 커뮤니티를 베이스로 영화, 지보이스 공연 등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과 연대하여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게이 코러스 합창단 지보이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재우: 지보이스는 친구사이 소모임 중 하나로 2003년도에 처음 생겼다. 당시 회원들의 활동이 저조해 친구사이가 많이 어려웠다. 커뮤니티를 붐업할 활동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외국의 성소수자 합창단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모여 노래하다 보니 공연이라는 목표가 생겼고,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게 됐다. 한때는 친구사이 정기모임을 하면 회원의 2/3가 지보이스 단원일 정도로 활발한 모임이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 같다. 입단의 기준이 있는가.

재우: 미모? (웃음) 우리는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하곤 모두 아마추어다. 특별한 보이스 테스트는 없고, 함께 노래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지보이스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전공자들이 '너네 노래 너무 못해서 같이하기 싫다'고 한다. (웃음) 지금 단원은 노래나 공연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 자체가 좋아 남아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감독으로서 힘든 점이 있을 것 같다.

재우: 영화에서 '왜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노래를 못할까?'라고 하는데, 그러고도 또 몇 년이 지났다. (웃음) 여전히 그 때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 자유로운 모임이다 보니 오래 머무는 단원이 있는가 하면, 출중한 노래실력으로 조직에 오래 남아줬으면 해도 금방 머물다 가는 단원들이 있다. 계속 한 자리에서 그런 부침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만은 않다.

오로지 극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종로의 기적>과는 달리 <위켄즈>는 IPTV 등 다양한 경로로 만날 수 있다.

동하: 사실 그 부분도 출연 동의서에 기재돼 있었다. 영화제, 극장 개봉, IPTV, 케이블, 공중파 등의 기준을 두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했다.

재우: <종로의 기적>도 친구사이 공동제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극장에서 보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영화를 좋아해주길 바랐기 때문에 <위켄즈>는 기획 단계부터 무조건 IPTV까지 유통을 목표로 했다.

편집하면서 점점 모자이크가 줄었다고 들었다. 무엇이 출연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궁금하다.

동하: 성소수자로서 노래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며, 함께 연대하는 것이 지보이스 활동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위켄즈>라는 다큐멘터리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혼자라면 어려웠겠지만, 비슷한 두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하나 둘 용기를 내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찾게 됐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친구들이 용기를 갖고 마음을 바꿔주었다.

재우: 시기와 질투도 한 몫 했다. (웃음)

동하: 사실 자신의 얼굴을 극장의 스크린으로 본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최대한 예쁘게 나오도록 신경 써서 찍기도 했고. (웃음) 테스트 영상이나 가편집본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출연을 동의하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을 바꾸기도 했다. '사실 이 기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나의 모습을 누군가 기록해준다는 것이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다.' 이런 말들로 설득을 했을 때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촬영이 후반부로 갈수록 출연 욕심으로 카메라 앞에서 서성인다든지, 술자리에서 카메라를 의식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굉장히 밝고 사랑스러운 영화다. 단원들이 서로 긴밀한 사이인 만큼 갈등의 순간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화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다.

동하: 사실 그런 장면을 꼭 담고 싶었는데, 단원들이 카메라만 있으면 서로를 부르는 호칭부터 얌전해졌다. 밀착 촬영을 해야 하는데 많은 인원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나도 생업이 따로 있다 보니 적당히 찍고 철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꼭 철수를 하고 나면 사단이 일어나 누구랑 누가 싸웠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웃음) 처음엔 갈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구성을 할수록 꼭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우: 10주년 공연의 과정을 담는 영화였기 때문에 지보이스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해 성공적으로 공연을 해내는 그림을 생각했었다. 기획단계 때는 지보이스 안에서 한참 갈등이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작은 모임이 갑자기 커지면서 지보이스 안에서도 그룹이 생기고 서로 싸움에 눈물까지 보이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촬영이 시작됐을 때는 그런 갈등에 너무 지쳐있기도 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던 것 같다.

단원들이 카메라 앞에서 스스럼없이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동하: 같은 인터뷰를 여러 번 진행했다. 인터뷰 후 리뷰를 하면, 내가 워낙 잘 아는 사람들이다보니 경험에 비춰을 때 이 사람이 이 야기를 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공간을 바꿔보기도 하고, 질문 방식을 바꿔보기도 했다. 아니면 내가 불편한가 싶어서 친한 단원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겪다보니 마지막 인터뷰 때는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주더라.

지보이스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노래한다는 큰 매력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재우: 똑같은 남성 합창곡을 오랫동안 부르다보니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술자리에서 누군가 좋은 말을 툭 뱉어내면 단원들끼리 '와 이거 가사감이다!'하면서 경쟁하듯 가사를 쓰고, 즐겁게 작업한다. 처음에는 지보이스에 오래 남아줬으면 하는 단원이 들어오면 그 친구의 블로그를 열심히 읽고 내용을 가사로 만들어 마치 선물처럼 노래를 주기도 했다.

지보이스는 노래를 통해 여러 단체와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재우: 어느 날 비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행사 무대에 서달라는 초청을 해왔다. 조금 의아해 하며 갔는데, 우리 공연에 종종 오시던 분들이 즐겁게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고, 감동도 받았다. 그 때 '노래를 통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이런 활동이 아니라면 다른 그룹이나 계층, 집단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기가 어려울 텐데, 연대활동을 통해 그 공간에 직접 찾아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 해고노동자에 대해 보고 듣는 것들이 지보이스 입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넓어지고 단체가 넓어지면서 세상을 배우게 되니까.

다양한 공연 무대에 설 때 모두 생각하는 방향이 맞지 않거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단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가는가.

동하: 처음에는 공연을 불편해 해 연습만 함께하고 무대에는 서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다. 그런 친구들은 공연 스태프로 현장을 경험해보도록 했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무대까지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다음번엔 저도 올라가 볼게요'하는 친구도 있었다. 실제로 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면 두려운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눈앞에서 직접 보고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우: 친구사이는 성소수자인권운동을 하며 연대활동도 중요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래만 좋아 지보이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오리엔테이션이나 정기모임을 통해 의식화 교육을 진행한다. (웃음) 이제는 지보이스가 꽤 많이 알려져서 '여기 들어오면 무조건 공연을 해야 하는구나'하는 친구들이 많아 설득하는 작업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다. 어쨌든 공연 무대에서 신나게 놀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던 벽이 별 거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위켄즈>는 지보이스가 함께 만든 영화란 생각이 든다. 극장상영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는데, 관객들과 만나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가?

동하: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관객을 처음 만났다. 영화가 끝나고 한 외국인 관객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감동적이면서도 내가 허튼짓을 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재우: 사실 지보이스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내부에서 음악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연대를 해야 하는가, 게이 이야기만을 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과 위태로움이 <위켄즈> 안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말해주는 것에 큰 위로와 힘을 받는다.

계속해서 지보이스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동하: 굵직한 일이 있을 때 틈틈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위켄즈>를 오랜 기간 촬영하면서 단원들도 나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지금은 쉬고 있다. 지보이스를 기록한 영상은 계속 남기고 싶다. 지금 이 단원들이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지보이스 활동을 이어나가, 다시 한 번 영화를 만들어 함께 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하: 처음 <위켄즈>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했을 때 모두 두려움이 많았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켄즈>를 볼 수 있길 바란다. GV 때 어떤 성소수자단체에서 '우리 단체도 이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했었다. <위켄즈>가 다른 성소수자단체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존재를 기록에 남겨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

재우: 지난 대선부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찬물을 끼얹는 이슈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시기에 지보이스가 많은 성소수자들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위켄즈>처럼 사랑스럽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을 전달하고 싶다.

인터뷰 / 김도란

사진 / 김은혜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 만든 환상의 하모니

<델타 보이즈> 고봉수 감독

노래를 하고 싶다는 꿈만 있는 네 남자가 '델타 보이즈'라는 남성 4중창 그룹을 결성한다. 누군가에게는 무모한 도전으로 보이겠지만 이들은 노래가 하고 싶은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델타 보이즈> 감독과 배우들 또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편의 멋진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 속 델타 보이즈 멤버들과 닮은 구석이 많아 더욱 흥미진진하게 다가오는 <델타 보이즈>. <델타 보이즈> 고봉수 감독에게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를 만드신 계기가 궁금하다.

<델타 보이즈>를 만들기 이전부터 <델타 보이즈>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백승환, 이웅빈, 신민재, 김충길 배우와 단편 영화 작업을 해왔다. 단편 영화를 몇 편 찍으면서, 이들이 엄청난 내공이 있는 배우라는 것을 깨닫고 장편 영화도 함께 찍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1950년대에 활동하던 흑인 남성 4중창 그룹 '델타 리듬 보이즈(Delta Rhythm Boys)'의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극중 '델타 보이즈' 멤버들이 중창 대회 참가를 위해 부르는 노래이자, 영화 엔딩곡이기도 하다)를 듣게 되었다. 2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었지만 '델타 리듬 보이즈'가 뿜어내는 에너지에 충격을 받았고, 남성 4중창 그룹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면 뭔가 굉장한 것이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배우들도 내 아이디어에 흔쾌히 동의했고, 의기투합해서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음악영화인데 '델타 보이즈' 멤버들이 모두 모여 끝까지 노래 부르는 장면이 라스트씬에 딱 한번 등장한다.

음악 영화지만, 음악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마지막에 '델타 보이즈' 멤버들이 노래하는 장면에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앞 장면에 일부러 노래를 넣지 않았다. '델타 보이즈'가 결성되기 이전 주인공들의 지루했던 일상처럼 영화가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에게 감정적인 울림을 선사하고 싶었다.

남성 4중창단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극중 뮤지션 활동 경험이 있는 캐릭터는 미국에서 온 예건(이웅빈 분)뿐이다.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그것도 이제 막 결성한 그룹의 이야기에 주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예건 역을 맡은 이웅빈의 이야기가 반영되었다. 이웅빈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교포고, 시카고에서 4중창단 멤버로 활동했다. 다른 배우들은 극중 캐릭터처럼 노래를 전문적으로 잘하지는 못한다. <델타 보이즈> 자체가 아마추어에 가까운 무명의 감독과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빌어 장편 영화 제작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극중 '델타 보이즈' 멤버들이 노래를 하겠다는 마음은 충만한데, 정작 실력, 열정, 노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감독과 배우들의 자전적인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긴 설정이다. 예술을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언갈 하고 싶다는 꿈은 있지만,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걸 힘들어한다. 저도 그렇고, <델타 보이즈> 출연 배우들도 그랬고. 그런 개인적인 고민들이 영화 속 캐릭터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간 게 아닐까 싶다.

영화 속 캐릭터들이 모두 매력이 넘친다.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달라.

<델타 보이즈>를 찍기 1년 전부터, 배우들과 두 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다. 점점 친해지다 보니, 연기도 잘하지만 개성이 뚜렷하고 재미있는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델타 보이즈>를 촬영할 당시에도 배우들에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끼와 열정을 카메라 앞에서 마음껏 발산해달라고 주문했다.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모두 실제 배우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영화 대사의 상당 부분이 배우들의 애드리브다. 촬영 전 배우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영화를 만들어나갔는지 궁금하다.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대강의 가이드라인은 있었다. 대략 시나리오가 나온 뒤 배우들과 리허설 겸 대본 리딩도 했다. 촬영 당일에는 배우들에게 기본적인 설정을 주되 대사, 행동 등 장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디테일은 배우들 스스로가 만들어나가게끔 유도했다. 사전 리허설을 통해 배우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살펴본 후, "이 상황은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면 좋겠어." 말하며 디렉팅을 했고, 배우들도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잘 해주었다.

배우들을 믿는다고 해도, 감독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영화'라는 틀 안에서 캐릭터 설정부터 대사까지 전적으로 배우들에게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었다. 이 영화에서 나는 배우들이 카메라 앞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멍석을 깔아주고자 했다.

롱테이크 촬영이 많은 편이다.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을 고스란히 살리고 싶었다. 배우들의 애드리브가 좋아서 롱테이크가 좋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고, 극영화이면서도 다큐멘터리와의 접점을 찾고 싶었다. 제작비의 압박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컷을 나누기 힘들기도 했다.

배우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아는 작가의 소개로 일록 역을 맡은 백승환 배우를 만났고, 백승환 배우의 오랜 지인이 각각 대용, 준세 역을 맡은 신민재, 김충길 배우이다. 예건 역을 맡은 이웅빈 배우는 미국에서부터 10년간 함께 영화 작업을 해왔다. 지혜 역을 맡은 윤지혜 배우는 우연히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출연을 부탁했다.

등장인물들의 헤어스타일이 하나같이 독특하다. 특히, 일록(백승환 분)의 드래드 머리가 인상적이다.

머리가 평범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다. 일록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백승환 배우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배우의 분장 비용을 지원할 제작비가 여의치 않았는데 백승환 배우가 본인의 사비로 머리를 했다. 축구선수 김병지의 왕년 헤어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대용의 머리 역시 신민재 배우의 아이디어다. 대용은 머리만 봐도 요즘 사람답지 않은 데가 있고 어딘지 마이너한 느낌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신민재 배우가 김병지 머리를 제안했다. 자연스레 대용이 존경하는 인물도 김병지가 되었고.

제작비용 250만원으로, 촬영 9회차만에 장편 영화를 만든 일화로 유명하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배우들이 영화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해주었다. 촬영은 직접 했다. 예산 문제로 조명을 쓸 수 없어서 광량이 적어도 되는 카메라를 선택해 촬영했다. 배우의 지인들이 연출 스태프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영화를 완성한 이후에도 배우들에게 개런티를 제대로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다. 지난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대상을 받으며 상금을 배우, 스태프들과 함께 나눠가졌다.

연출, 각본뿐만 아니라 촬영, 편집, 제작 등을 혼자 했다. 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고, 영화 현장 전반을 책임지는 부담감과 고충이 컸을 것 같다.

영화에 등장하는 로케이션 섭외 대부분을 배우 지인들의 도움으로 해냈다. 촬영 일주일 전까지 최소한의 진행비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마음을 정하려던 차에, 아는 교회 집사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셔서 기적적으로 촬영이 시작되었다.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힘든 감정보다는, 좋은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간다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다만 금전적인 문제는 컸다. 하루라도 빨리 영화를 완성하고, 다시 생업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전투적으로 촬영에 임했다.

촬영이 가장 어려웠던 씬을 꼽자면.

딱히 어려운 장면은 없었다. 필름과는 달리 많은 장면을 찍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삭제할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고, 카메라 앞에서 "우리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찍었다.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고충을 굳이 꼽자면,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하기도 하지만 유독 애드리브에 강하다는 거다. 카메라 뒤에서 이들의 연기를 지켜보면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다. 내 웃음 때문에 NG가 난 적도 부지기수였다. 아예 카메라만 켜놓고 현장을 떠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배우들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존경스럽다.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라면이다.

라면이 소품으로 준비하기 가장 쉽고, 구입하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실제로 촬영하면서 배가 고프기도 해서 라면을 영화 소품 겸 식사대용으로 애용했다. 가끔 영화 속 캐릭터들이 라면 아닌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있는데, 당시 스태프와 배우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다. 라면을 먹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일상의 지루함을 드러내고 싶기도 했다.

엔딩 장면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게 끝낸 이유가 무엇인가?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대회에 출전하는 시퀀스가 있었다. 제작비 문제로 대회 장면은 삭제했고, 지금의 엔딩 씬으로 수정했다. 저와 배우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엔딩에 담으려고 했다. '델타 보이즈' 멤버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누군가 우리의 영화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계속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라스트씬은 배우들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사전에 약속한 대로 딱 한 번의 테이크로 마무리 지었다.

뒤늦게 영화를 시작하고,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하셨다는데.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다. 만들고 싶다는 꿈은 있지만 엄두는 내지 못하고 살다가 문득 정말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왔던 소니 PD 150 카메라를 들고 혼자 촬영을 했고, 편집도 개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편집도 시작했다. 돈 없이도 영화를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셈이다. 그렇게 영화 만드는 즐거움을 깨달으며 틈나는 대로 습작을 찍었다.

지난해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델타 보이즈>를 공개하고 곧바로 두 번째 장편 영화 <튼튼이의 모험>을 만들었다. <튼튼이의 모험>은 올해 열린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고, 대명컬처웨이브상을 수상했다. 영화를 빨리, 잘 만드는 비결이 무엇인가.

좋은 배우들과 영화를 찍는 과정이 즐겁다. 유명한 맛집을 돌아다니며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미식가들처럼, 영화를 만들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 <튼튼이의 모험>은 올해 2월경 촬영에 들어가 열흘간 11회 차에 촬영을 마무리했다.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 <튼튼이의 모험>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크라잉넛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튼튼이의 모험>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지난해 여름쯤 전남 함평중학교 레슬링 선수단을 소개받았는데, 레슬링부 감독님이 본인의 사비까지 털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다. 감독님께 본인의 사비까지 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레슬링을 가르치려는 이유를 물었더니, "프로 레슬링 선수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레슬링부 아이들 대다수가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처럼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들이다. 학교에서조차 레슬링부 운영을 반대하는 터라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감독님의 모습에 끌려서 감독님과 레슬링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

<튼튼이의 모험>에도 백승환, 신민재, 김충길 배우가 출연했다던데.

백승환, 신민재, 김충길 배우와 이번에도 함께하고 싶어서 극중 캐릭터 연령대를 고등학생으로 올렸다. 고등학생 역으로 출연하기에는 다들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이정도 노안은 괜찮지 않을까.(웃음) 그래도 코미디 영화니까 다들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고봉수 감독에게 '독립영화'란 무엇인가.

독립영화는 연출하는 사람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영화를 완성하며 인디·독립 정신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영화인들이 제작비 문제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포기하곤 한다. 그 누구도 돈 앞에서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지만, 단돈 250만원과 소수의 스태프만으로도 장편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델타 보이즈>에 함께한 배우들과 영화를 만들고 싶다. '델타 보이즈'의 멤버들처럼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터뷰 / 권진경
사진 / 김지은

영화 놀이 영화

<노후 대책 없다> 이동우 감독

이동우 감독이 처음 카메라로 친구들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그 영상이 <노후 대책 없다>라는 다큐멘터리로 완성되리란 걸 아는 사람은 없었다. 이동우 감독 본인조차도 그랬다. 떠들고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사람들과 같이 보면서, 단지 웃기려고 시작했던 이야기는 영화가 됐다. 꼭 그만큼 장난스럽지만, 또 그만큼 솔직한 <노후 대책 없다>의 이야기.

<노후 대책 없다>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묻고 싶다.

처음엔 DVD를 만들려고 했다. 일본에서는 펑크 밴드가 CD나 DVD를 만들어 팔곤 한다. 스컴레이드, 파인더스팟은 물론 투어에서 만난 밴드들의 공연과 술 마시며 함께 노는 장면 등을 찍어서 DVD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았다. 목적에 맞게 사람보다는 음악, 공연 장면 위주로 찍으려고 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공연보다 사람들이 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음악 만드는 것보다 다른 사람 웃기는 게 목표인 것 같은 사람들이라, 그 웃기는 모습을 자꾸 찍게 됐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가 생기고, 공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제는 편집본을 본 사람이 재미있으니 출품해 보라고 해서 지원했다. 영화과 다니는 학생에게 영화제 상영은 꿈이지 않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재밌는 한 편의 영화가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다.

촬영 방식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다.

렌즈 하나 끼운 카메라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찍었다. 스컴레이드 공연을 할 때는 세워 놓고. 다른 스태프는 없었고, 일본에서 촬영할 때만 도움을 받았다. 일부러 촬영 때문에 함께 갔다기 보다는 공연 때문에 카메라를 들 수 없을 때 카메라를 맡긴 거다. 처음엔 다큐멘터리를 만들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서 따로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평소 모습을 찍고, 찍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담지 않았다.

조명이나 동시녹음 마이크를 쓰지 않았고, 후반작업도 하지 않았다.

조명도 음향 시설도, 그냥 원래 없었다. 후반작업은 개봉용 최종 편집본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한 그대로가 웃길 것 같았다. 영화제 출품 버전 엔딩크레디트에 'D.I 안함, 사운드믹싱 안함'이라고 적어 뒀는데, 그것도 그대로 지킬 수 있고. (웃음)

촬영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영화에서 나오는 반 년 가량이다. 그 정도 찍으니 영화로 만들어도 재미있겠다고 느껴질 만큼 이야기가 쌓여 있었다. 너무 오래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지 말고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파인드스팟, 스컴레이드가 주축이 되어 등장한다. 두 밴드가 핵심적인 촬영 대상이 된 이유가 있는지.

제일 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기도 하다. 우리끼리 웃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재미있을 사람들을 담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려면 가장 적합한 게 두 밴드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파인더스팟을 좋아했는데, 스무 살 되고 고향인 부산에서 상경하면서 공연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처음엔 음악밖에 몰라서 가사가 재미있는 밴드라고 여겼는데 사람들이 더 재미있는 거다. 나한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외국으로 이민 간 친구들은 어떻게 담게 됐나.

강용준은 워낙 친하기도 하고, 촬영 당시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국내와 일본에서 친구들과 놀면서 촬영을 어느 정도 마치고, 강용준에게도 화상전화로 아무 말이나 해 보라고 해서 그 영상을 삽입하게 됐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촬영하는 영화 스태프를 하면서 갔다. 노트북도 장비도 있었던지라 기회가 좋았다.

찍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건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하다.

완성본 자체가 긴 촬영분 중 재미있는 건 다 추려서 넣은 거다. 웃기지만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흐름상 맞지 않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해서 삭제한 장면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평안네 집에 모여서 와구와구 먹고 유투브 틀어둔 채로 소리를 지르면서 노는 게 가장 흔한 일상이었는데 그런 장면이 빠졌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장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우는 거? 사람들이 우는 게 여러 번 나온다. 사실 재미있다고 할 만한 순간은 아니고 당시엔 정말 힘들어서 우는 거였는데, 우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때 가라앉아 있는 대신 우는 사람 옆에 다 모여서 낄낄거리고 결국엔 울던 사람도 자기가 남들 웃겼단 생각에 웃어버리던 게 생각나서 오히려 우울하지 않다.

영화를 보고 펑크 씬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 같다.

영화 속에서 워낙 가감없이 웃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단지 영화를 본 것일 뿐인데 일방적으로 출연자들을 가깝게 느끼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냥 막 대해도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한 거다. 객석과 무대 경계도 없어 보이고 서로 서로 가까워 보이지만 관계의 예의는 우리도 당연히 갖춘다.

한편 최근 들어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도 많이 했다. 영화 속 유쾌한 모습과 연대 활동, 관객의 호평과 긍정적인 리뷰 덕에 하드코어 펑크를 하는 사람들이 멋지고 재밌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하지만 소수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고민,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담지 못했다. 용서를 받고자, 박수를 받고자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어서 잘못을 되짚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다 찍었을 때 길이가 얼마나 됐는지.

대강 이어 붙이니까 100시간 가까이 됐다. 영화의 형식을 얼추 갖춰서 편집하니 5시간이 됐고, 거기서 더 잘라가면서 완성했다. 주변 사람들을 거의 다 찍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다. 설명에는 나왔는데 영화에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일본 투어 중엔 이동도 하고 직접 공연도 나서야 하니 촬영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안 찍었다. (웃음) 그렇지 않아도 짐이 많은데 카메라까지 들고 다니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투어 전후에 주로 촬영을 했고, 투어 중엔 사실 많이 찍지 못했다. 재밌게 찍은 건 거의 후반부다. 박수환이라는 친구가 함께 다니며 촬영을 도와줬다. 다른 친구들은 격려도 만류도 안하고 그냥 보고 있기만 했다. 꾸준히 공연 사진을 찍는 이주영만 이거 찍어, 저것도 찍어 하고 기록하기를 시켰다. 투어를 하면서 만난 일본 밴드들은 이전에도 오며가며 같이 공연하고 얼굴도 본 사이라서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쉽게 괜찮다고 해줬다. 그렇다고 일본어로 소통을 잘하는 건 아니다. '술 마셔, 감빠이, 이주영' 정도만 말할 수 있다. 아, 이주영은 고유명사구나.

영화에 잔잔한 피아노 멜로디가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다른 삽입곡 없이, 단일한 멜로디만 반복해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

초반엔 이 영화에서 기대하지 않은 음악이 등장하는 게 웃음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선택했고 나중에는 챕터 넘어가는 걸 짚어주는 느낌으로 사용했다. 애초에는 정말 별 생각 없이, 공연 장면의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운드가 비는 중간 중간을 채울 다른 것을 찾다가 단순한 멜로디의 피아노 프리소스를 삽입하게 됐다. 음악으로서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고 보면 공연 실황의 삽입 길이가 길다.

처음엔 실황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길이를 살렸다. 파인더스팟이랑 반란은 멋있지 않나. 길게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스컴레이드는 내가 멋있게 나온 장면을 위주로 넣었다. (웃음) 그리고 파인더스팟과 반란은 가사가 워낙 좋아서 가사를 자막으로 삽입하고 충분히 전달되게 하고 싶었다. 스컴레이드는, 가사가 없다. 영어인데 다 틀리기도 하고, 어차피 가사가 별로 필요가 없기도 하다. 똑같이 하드코어 펑크라고 부르긴 하지만, 파인더스팟이랑 스컴레이드가 하는 음악이 다르기 때문이다. 스컴레이드는 하드코어 펑크 중에서도 크러스트 펑크라고 불리는 계열의 음악을 한다. 시끄러움의 장르가 미세하게 다르다고 할까.

영화를 만들며 기존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았는지 궁금하다.

창작에 참고하려고 일부러 봤다기 보단, 평소 인디스페이스도 자주 가고 영화도 많이 보는 편이다. 영화과를 다니기도 했고. 제일 좋았던 다큐멘터리는 탑골공원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의 삶과 내면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박세호)다.

그럼 <노후 대책 없다> 이후 다큐 작업을 이어갈 맘이 있나.

다큐멘터리는 다시 안 할 거라 마음을 먹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찍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려면 단순히 관심을 갖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부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을 위한 촬영만 하면 실례일 테고.

<노후 대책 없다>는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다. 각 영화제마다 기억이 궁금하다.

영화제에서 상영한 건 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 영화제 다니는 것만 다 찍었어도 새로운 장편 한 편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것 같다. 처음 간 전주국제영화제는 밴드 미국 투어와 시기가 겹쳤다. 못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게 흔한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투어 기간을 줄이고 전주로 갔다. 파인더스팟도 일본 투어 중이었는데 일본에서 바로 오고. 다들 객지 생활을 하다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전주에서 만나서 엄청 재밌게 놀았다. 그때까지 출연진 중에도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송찬근은 우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와서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나중에는 안 보고, GV 때는 나가 버렸다. (웃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DMZ국제다큐영화제도 재미있었다.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에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초청받아 가긴 했는데 영화 볼 돈도 점심 먹을 돈도 없는 거다. 이동혁 혼자 영화 관람을 시도했는데 영어 자막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음식은 왠지 좀 저렴할 줄 알았더니 한국이랑 물가가 똑같았다. 호텔에 누워있다가 밤이 되어 파티가 열리면 거기서 음식을 먹고, 끝나면 다시 호텔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있길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날 상영이 끝나고 관객 중 한 노신사 분이 우리더러 한국 사람이니 밥을 사주겠다고 했다. 한국을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할아버지인가, 생각하고 따라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런 선선한 호의가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가 길을 걸으려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분한테 사진을 부탁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아르헨티나 배우로 활동하는 김창성Chang Kim Sung 배우였다. 그분이 며칠이나 밥과 술을 사 주셨다. 정말 좋은 분이었다.

다른 관객들도 궁금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비롯해서 현지 독립영화계에 있는 분들이 보러 왔다. 한국 펑크 밴드 얘기란 걸 어디서 들었는지,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펑크 밴드들도 많이 보러 왔더라. 펑크 티셔츠 입고 온 관객들도 많았고. 확실히 국내에선 하드코어 펑크의 인지도가 낮은데, 거기선 펑크 자체에 관심을 갖고 보러 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긴 어렵지만 질문도 굉장히 좋았다.

그 후 서울독립영화제2016에서 대상을 받았다. 그때 기분이 궁금하다.

좋았다! 전날 같이 술 마시면서 '우리 내일 시상식 가야 하니까 상 받으면 뭐 할지 한 마디 해 봐'하고 놀았는데, 막상 진짜 대상 발표 땐 송찬근이랑 말하다가 호명되는 걸 못 들었다. 뒤늦게 "뭐?" 하고선 너무 부끄러웠다.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셔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같은 말을 했던 것 같다. 실제로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연봉 2천만 원이 되는 진기한 경험도 했다. 상금은 재깍 사람들과 나눠 가졌다.

그러고 보니 출연자들의 근황도 궁금하다.

촬영 당시와 비슷하다. 그때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기는 하다. 이주영과 이평안은 외국에 있다. 이주영은 일본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다. 이평안은 워킹홀리데이 가서 포도를 따고 있고. 이평안이 진짜 예의 바르고 일도 잘하는데, 친구들이 일하는 데마다 찾아가서 방해하는 바람에 계속 알바를 잘렸다. 우리 때문에 더 망하기 전에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막상 가니까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라한다. 며칠 전에도 문자가 왔다. 어젯밤 꿈에 공연장에서 모두 함께 소주 마시고 공연하고 있었는데, 눈뜨니까 포도밭이더라고.

마지막은 진지한 질문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펑크 하는 사람이 웃기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웃음) 음악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당연히 멋있는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도 웃기는 모습은 잘 안 나오지 않나. 진지한 건 사실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펑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영화를 보고 조금쯤 알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 영화를 본다고 펑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펑크를 하는 사람들의 신념이나 사상, 펑크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펑크란 이러이러한 거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건 재미없잖아.

인터뷰 / 김송요
녹취 / 이나경

동료를 찾습니다

나는 단편다큐멘터리 <나와 나의 거리>를 연출했고, 현재 영주댐 수몰지역의 이야기 <기프실>을 연출하고 있다. 6년의 시간 동안 고작 다큐멘터리 2편을 만들면서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 고민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앓는 소리를 하고, 옆 사람들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있다. 작품 때문에 드는 고민은 연출자라면 누구나 있을 테니 앓는 소리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한다. 떠올려 보니 내가 활동하고 있는 오지필름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서울독립영화제가 있었다. 2010년 열렸던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박배일 감독은 <잔인한 계절>이라는 작품을 상영했다. 나는 그때 춘천에서 열린 국제대학생평화영화제 일을 막 끝내고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 얹혀살면서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학교 선배인 박배일 감독은 그런 내게 오지필름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싶은데, 단체는 2인 이상이어야 하니 같이 해보자고 제의를 해왔다. 영화를 같이 만들어보자니! 나에게는 심장이 쿵쿵 뛰는 달콤한 제의였다. (그 당시에는 그랬다.) 대학생 때 선배와 같이 작업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기대에 부푼 나는 이틀 만에 고민을 끝내고 부산으로 무작정 내려왔다. 내 입장에서 오지필름의 비화는 이러한데, 후에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된 창립 배경은 갈피 못 잡는 후배 한 명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선배의 마음이었다고 한다. 살려주려고 한 게 맞는지 의심이 들지만….

겨울옷을 꽁꽁 싸매 입어도 발가락이 시리도록 추웠던 2011년 1월. 어두컴컴한 구포도서관 지하1층에서 오지필름이 만들어졌다. 6년이 지난 지금, 그 날의 기억이 또렷하진 않지만 그때 들었던 가슴 떨리고 설레는 마음은 남아 있다. 사무실도 없이, 월20만원의 활동비에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고 보자'는 열정이 지금의 오지필름을 만들어 온 것 같다. 사다리타기로 대표가 된 '웃픈' 사연이 있지만, 나는 6년째 오지필름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두 명으로 시작했던 오지필름은 세 명이 되었다가 네 명이 되었고, 3년 전 다시 세 명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6년 동안 한 명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면서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은 '오지필름이 언제까지 세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다.

6년 동안 오지필름의 활동을 돌이켜 보면, 다큐멘터리작업을 같이 할 동료를 찾기 위해 꽤 일을 벌였다. 독립다큐멘터리제작아카데미 '깨세아카데미'를 비롯해 제작비와 멘토링을 지원하여 함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자는 '오지게프로젝트' 까지. 하지만 결과는 참패. 3기까지 이어졌던 깨세아카데미는 한 명의 동료도 남기지 못했고, '오지게프로젝트'는 한 달간의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지원자 없이 글을 내려야 했다. 현재 오지필름에서는 4개의 작품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 각자 한 작품씩, 박배일 감독은 한 작품을 더 진행 중이다. 얼마 전 박배일 감독이 힘이 부치는지 조연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SNS로 수소문해 스태프를 구해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3명이서 4작품을 준비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된다. 작업이 더딜 수밖에 없고 점점 지치게 되고 작품은 어느새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있다. 박배일 감독은 여전히 혼자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부산에는 15개의 (캠퍼스를 제외한 4년제 기준) 대학교가 있다. 그 중 영화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5개. 아시아영화학교, 영화의전당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까지 가세해 이 좁은 부산에서 한 해 100여 편을 웃도는 단편영화가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부산에서 영화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건 힘든 일이다.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열린 한 영화제에서 우연히 부산에서 활동하던 배우를 만났다. 서울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기준비를 하고 있다는 짧은 대화와 씁쓸하게 웃던 그의 얼굴이 문득 떠오른다.

오지필름은 이런 부산에서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도 잘 버티고 있다. 다른 지역 감독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일 것이다. 많은 동료 사이에서 어쩌면 더 힘든 경쟁의 구조에 내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역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장점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없지만 오지필름 세 명이서 똘똘 뭉쳐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좋은 동료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그래도 놓기 싫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쩌면 오지필름의 동지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글 / 문창현(a.k.a 문대표) 춤추는 걸 좋아한다. 엄마와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다큐로 만들고 싶다. 오지필름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하고싶은 일 계속 찾아가는 게 꿈이다.

다른 영화 말고 너

정재웅, <이크 하우 반 야우>

나를 붙잡는 영화

나는 어떤 영화를 두고 '좋아한다'고 말하는가. 나는 이 표현을 분열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주로 영화를 지지하거나 관람을 권유할 때 사용한다. 여기서 좋은 영화는 다른 사람과 어려움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가령 메시지나 주제의식, 기술적 완성도, 재현 대상의 사회적 가치, 표현 스타일, 윤리성, 기존 영화와의 차이, 영화이론 쟁점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두고 괜찮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을 좋은 영화라 하는 것이다. 위 요소들은 분명 영화 담론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영화에 대한 판단을 다소 도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며 매너리즘에 빠진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좋아할 때, 관습적인 틀에서 큰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그다지 맘에 들지 않음에도 쉽게 지지자에 편승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나는 어떤 영화를 다른 의미에서 좋아한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생각을 발화하는 건 쉽지가 않다. 나 또한 명확한 이유를 모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감흥이라 하는 형언할 수 없는, 때로는 억울할 정도로 사소한 어떤 것이 나의 감각을 끊임없이 붙잡아 괴롭힌다. 나는 이것이 왜 나를 놓아주지 않는지를 두고 질문해야 한다. 문제는 지지하기 어려운 영화에 내가 감흥을 느낄 때이다. 나 자신도 설득하기 어려운 '좋음'이라는 감정은 늘 나를 당혹스럽게 한다. 최근 정재웅의 <이크 하우 반 야우>가 떠올랐을 때도 그랬다. <이크 하우 반 야우>는 유리공장 노동자인 클로짓 게이 대현에 관한 영화다. 대현은 공장 동료 주성을 좋아한다. 하지만 주성은 파견 직원 선화를 좋아한다. 자기 나름 대립각을 세우던 대현은 선화에게 오해를 사면서 소동을 겪고야 만다. 사건 속에서 대현은 자신의 진심을 밝히기는커녕 자신의 혐의를 해명하지 못한 채 고립된다. <이크 하우 반 야우>는 이성애자 남성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성소수자가 지워지는지 대현의 개인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지지하기에 다소 망설여지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영화가 재현하는 서사와 이미지의 폭력성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공장의 남성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마다 음담패설을 일삼는다. 여성 직원이 눈앞에 있음에도 성매매 업소에서의 경험을 나누거나 성소수자를 희롱하는 태도를 숨기지 않는다. 누구는 대현에게 왜 음담패설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기까지 한다. 이러한 이성애자 남성중심 폭력 구조를 드러내는 과정 안에서 선화가 '업무시간에 셀카나 찍고 있는' 여성으로 재현되는 여성혐오적 도구화 또한 영화가 가진 오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으로 영화의 문제를 무마하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 왜 내가 이 영화를 호출하는지를 말하고 싶다. '좋아하는 독립영화'를 생각하며 기억을 불러 모으던 중, 갑작스레 한 동성애자 남성이 다른 남성의 속옷을 붙잡고 그것에 남은 체취를 깊게 들이마시는 한 쇼트가 나를 몇 시간이고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 쇼트는 <이크 하우 반 야우>의 마지막 쇼트였다.

왜 3년 전에 본 사소한 신체가 이후 축적된 영화 경험을 뚫고 나에게 왔는지 의문스러웠다. 생각해보면 해당 쇼트에서 대현의 호흡은 '주성을 사랑한다'는 영화 속 유일한 진언이었다. 대현은 항상 폭력과 고립화 속에서 함구해야 했다. 그래서 이 쇼트는 대현을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틈'이다. 그의 숨소리는 어떤 소리보다 치열했다. 나는 지지하기 어려운 영화임에도 이를 지금 잡아야 함을 느꼈고, 나에게도 실로 위급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나는 왜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크 하우 반 야우>의 감흥은 내가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영화가 불쑥 나에게 나타난 간절함이다. 이 감정을 선명하게 형언할 자신은 여전히 없다. 하지만 대현을 닮은 것 같아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신체와, 폭력과 혐오와 차별에 자꾸만 세상 속에서 숨겨지는 수많은 신체들에게 우선 보낸다. <이크 하우 반 야우>에 대한 지금 나의 언어가 또 하나의 틈이 되길 바란다.

글 / 임종우 — 학교에서 영상기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2016에서 관객심사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영화, 이러한 영화가 놓이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화 보여주는 사람

올해로 10년 째, 서울아트시네마 영사실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서울아트시네마가 둥지를 옮겨가며 수많은 시대와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영화를 갖가지 형식과 변화하는 포맷으로 상영하는 동안, 말 그대로 그 영화들 '보여준' 사람. 정연주 영사기사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연주라고 하고요, 2008년 11월부터 서울아트시네마 영사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2006년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 기술팀을 시작으로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 지금은 사라진 충무로영화제 제1회와 2회 때 영사 업무를 맡았어요.

영사기사라는 직업을 희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관에서 뭐라도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극장 영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사는 지역 극장에서는 영사실에 여자를 받지 않아서 일을 못 했어요. 이후에 영화제 기술팀에서 일하면서 필름을 처음 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영사를 하는 건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어서 계속하게 되네요.

일과나 직무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일하는 서울아트시네마는 오후, 저녁 시간대 상영에 주로 업무가 이뤄져요. 상영관리를 위해서 상영본 검수를 하고, 기계를 계속 확인하는 게 주된 일이에요. 상영 중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상영시간에는 반드시 대기를 하고요.

최근에는 DCP(Digital Cinema Package)가 주된 포맷이잖아요. 상영 프로세스가 궁금해요.

DCP 상영본은 거의 대부분 외장하드로 입고돼요. 상영본을 서버에 입력을 하는 걸 '인제스트(injest)'라고 하는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그냥 USB를 연결하면 돼요.(웃음) 평균적으로 90GB 인제스트에 한 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인제스트가 잘 되는지 보고, 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유를 찾아서 파일을 새로 받거나 기술적 결함을 처리해요. 인제스트가 완료되면 상영 정보와 상영본이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영사 테스트를 거친 뒤 상영을 해요.

상영본 검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필름의 경우 먼저 촉각 검사를 해요. 필름에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지 보는 거죠. 손상이 있으면 수선을 해요. 화면비와 사운드 포맷을 확인하고, 릴 체인지(reel change)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 등 표식을 확인해요. 편집으로 나눠 놓은 필름은 바로 이어서 틀 수 있도록 잇기도 해요. 디지털은 앞서 말한 대로 인제스트에 주의를 기울이고, 포맷을 확인해요. DCP가 많지만 HD나 HDV 같은 테이프 포맷도 쓰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타임코드(TC)와 프레임레이트, 화면비, 사운드, 자막 등을 확인해요.

필름상영과 DCP 상영을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지털도 사고가 나지만, 필름은 아예 끊어질 수가 있으니 불안해요. 깨끗하고 간단한 필름은 디지털 상영과 준비하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항상 상태가 좋은 필름이 수급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필름 상영은 렌즈, 코스를 맞춰 주고 릴을 바꿔주는 등 수고로운 과정이 있어요. 사실 당연한 과정이던 것이 디지털 상영과 비교되며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영사실 안에서 상영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사실에 따라서 모니터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서울아트시네마는 영사창이 따로 열리지 않는데, 영사창을 열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하기도 해요. 소리 모니터 역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긴 하지만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기억에 남는 영사사고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상영 중간에 필름이 끊어지는 때가 있어요. 러닝타임으로 1초 분량에 쓰이는 필름 길이가 45.6cm거든요. 그러니까 1초 분량의 사고만 나도 굉장히 큰일인 거예요. 필름이 타버릴 때도 있어요. 필름이 제대로 돌지 않고 멈춰 버릴 수 있거든요. 그때 영사기에서 나오는 빛을 빨리 차단하지 못하면 필름이 오징어가 타듯 우그러지며 녹아버려요. 관객이 스크린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영사 사고라서 더 아찔해요. 시각 효과로 필름 타는 장면을 넣은 영화를 종종 보는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스크린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영사실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주신다면요.

장점은 상영관과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극장 스태프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영관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영사기사가 아닐까 해요. '내가 어떤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영사실에 있다 보면 왠지 제가 극장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기분이 좋아져요. 단점은 역설적으로, 영화를 못 보는 거예요.(웃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상영시간이 업무 시간이니 보러 갈 수가 없어요. 다들 노는 시간에 일하는 건 좋기도 힘들기도 해요.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만날 때 제일 즐거우세요?

최근에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기타노 다케시 기획전을 했는데요, 비디오로 보거나 아주 예전에 극장에서 봤던 영화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전 본 영화를 다시 틀게 되거나, 회고전을 통해 옛 작품을 볼 때가 좋아요.

일하면서 제일 성취감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힘든 영사를 마쳤을 때. 막막하게 느껴지는 필름 상영을 끝내고 필름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로 정리하면서 큰 성취감을 느껴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하나씩 폐막하거나, 속을 썩이던 고장 문제가 해결될 때도 뿌듯해요.

영사기사가 적성에 맞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어두운 데서 있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해요.(웃음) 상영본이며 기계를 꼼꼼히 봐야 하니까 차분하고 세심한 태도도 중요하고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주의력 혹은 관찰력도 필요하겠죠. 기계나 컴퓨터를 잘 아는 것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다 몇 번 시도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처음부터 잘해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셔도 괜찮아요.

영사기사로서 감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감독님, 이것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제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건데, 상영본을 일정에 맞춰서 주시면 좋겠어요.(웃음) 영사실 사람들도 감독님들만큼 영사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사 테스트도 꼭 해드리고 싶거든요. 상영본이 촉박하게 전달되면 만족스러운 준비가 힘들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일정을 정해 두는 걸 추천해요.

인터뷰+사진 / 김지은

녹취 / 이지윤

어제 극장에서 토끼리를 만났어

글/그림 윤자영

NOW NO.13 2017.07
발행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편집 서울독립영화제
자문 김동현
기획 김도란, 김송요, 김지은, 이도훈, 이은지
담당 김송요
진행 김지은 이채현

등록일 2001년 12월 10일
등록번호 제16호-2444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5 2층 (04205)
전화 02-362-9513, 02-334-3166
팩스 02-363-3154
이메일 siff@siff.kr
홈페이지 siff.kr / indienow.kr

독립영화 매거진 NOW 배포처

서울
CGV아트하우스 대학로
CGV아트하우스 명동역
CGV아트하우스 압구정
KT&G 상상마당 시네마
더 북 소사이어티
미디액트
상수동까페
서울아트시네마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아디스아바바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
유어마인드
이리카페
인디스페이스
카페 공드리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인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영화공간 주안
헤이리시네마

강원
강릉 물고기이발관
속초 동아서점
춘천 일시정지시네마

대전/충남/충북
대전아트시네마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지프떼끄)

광주/전남
광주극장
광주 맥거핀
순천 책방심다

대구/경북
CGV아트하우스 대구
안동 중앙극장
오오극장

부산/경남
CGV아트하우스 서면
FROM
국도예술관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창원 씨네아트 리좀